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8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4일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법원,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계엄 443일 만에 1심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국가 근간 뒤흔든 내란 인정하고도 사과없는 내란범에 '초범' 선처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2·3·4면〉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렸지만, 광주·전남 지역민과 시민사회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처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만이며, 기소된 지 389일 만에 내려진 선고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탄 지급이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했고 범행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반영해 윤 전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노상원에게는 징역 18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과 윤승영은 범행 공모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기로 결심한 것을 이번 내란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707특임단 등 특수 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 기관의 권능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주요 인사 명단을 작성해 체포조를 가동한 점도 국회 기능 마비를 노린 핵심 범죄로 인정됐다.

12·3 비상계엄 주요인물 1심 선고

피고인	검찰 구형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징역 10년

연합뉴스

내란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곁에서 적극 조장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책임이 인정됐다.

그는 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당 당사 및 여론조사 기관 등에 군 병력을 헬기와 버스로 출동시키도록 세부 계획을 지시했다.

또한 독단적으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려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한 사실도 드러나 징역 30년이라는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는 등 김 전 장관과 치밀하게 내란을 기획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계엄군에 부역한 경찰 지휘부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법률 집행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적인 포고령을 근거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돕고, 선관위 외곽 통제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지휘 계통에 따라 차벽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까지 출입 통제에 앞장서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는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의 출입을 몸으로 막아섰으나,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 특성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정황과 몰래 일부 의원들을 출입시켜 준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조력한 혐의를 받은 김용군과,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을 돕기 위해 경찰 형사 10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공유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자 쇼트트랙 역전 드라마 3000m계주 '금빛 질주'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막판 뒤집기로 3000m 계주 정상에 올라 8년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관련기사 18면〉

최민정·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로 구성된 대표팀이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지난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세화여고)의 금메달에 이어 나온 한국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2018년 평창대회 이후 8년 만에 다시 찾은 금메달이기도 하다.

이날 결승에서 16바퀴를 남겨두고 앞서 달리던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졌고, 최민정이 이를 피하는 사이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했던 한국은 심석희가 밀고 최민정이 달리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힘껏 밀어주면서 2위와 격차를 좁힌 한국은 5바퀴를 남겨두고 다시 속도를 냈다. 심석희의 푸쉬를 받은 최민정이 캐나다를 따돌리고 2위로 올라섰고, 흐름을 탄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역전 레이스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극적인 서사로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은 '전설' 전이경과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주인공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분위기를 탄 대표팀은 21일 여자 1500m, 남자 5000m 계주에서 '골든 데이'를 노린다.

21일 오전 4시 15분 여자 1500m 준준결승이 시작되고, 오전 5시 17분에는 남자 대표팀이 5000m 계주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편 이번 대회 한국의 첫 메달 소식을 전했던 유승은(성복고)의 '멀티 메달' 도전은 아쉬운 실패로 끝났다. 한국은 유승은에 이어 최가온의 금메달, 김상겸(하이원·남자 평행대회전)의 은메달을 더해 올림픽 스노보드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도세 중과 … 광주·전남 주택 경기 '꿈틀' ▶8면
북스 - '상처와 화살' '브레이크넥' ▶14·15면
KIA 새 얼굴 데일 "매일 1%씩 발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